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버섯 재배를 공업화하여 사계절 많은 버섯을 수확하고 있다. 공화국을 버섯의 나라로 만든 실 구상을 펼치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처에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흐뭇할 버섯 풍경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단위로 일떠선 평양버섯공장에 가면 하얗게 돌아나 척척 들어진 팔뚝만 한 흰곤봉버섯들을 볼수 있다.

공용식버섯재배장과 실내재배장을 배합하여 버섯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공장의 재배실에서는 터질듯 살이 오른 흰곤봉버섯들이 짙은색이 가득가득 돌아나고 있다.

평양버섯공장에서는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태도를 마련하고 버섯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체로 꾸리고 통합생산체제조종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버섯재배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훨씬 높였다. 공장에서는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버섯재배, 려검정버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을 철따라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버섯재배공정을 확립하였다.

이 공정이 확립됨으로써 계절적영향에 구애됨이 없이 각이한 종류의 버섯을 종전보다 1.3배이상 생산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사리원시에 위치한 정방산버섯공장에도 최첨단 버섯배, 버섯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버섯들이 저저마다 키돋음을 하며 무리지어 돌아나고 있는 버섯재배장의 광경은 볼수록 장관이다.

더 많은 버섯을 재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과학기술의 열풍, 자력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흐트러지지 않는 버섯공장의 장엄한 정방산버섯공장의 종업원들이다.

그런가 하면 동명군 보성협동농장에서 버섯생산을 잘하여 그 덕을 보고 있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버섯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는가다 자란 버섯들을 수확하는 재배공들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한껏 비껴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온갖 꽃 만발하는 계절과 더불어 고상하고 생기발랄한 청년들의 모습은 거리를 더욱 활기있게 해주고 있다.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사진속의 주인공들의 모습에 그대로 비껴있다. 본사기자



정방산 버섯 공장 에서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사회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재보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언어학, 민족학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언어학, 민족학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언어학, 민족학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아름다운 말소리, 재인 문법구조에 대하여 깊이있게 론정한 연구성과들은 평양문화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문화적이며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이 사회의 확고한 풍조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자식의 이름을 고상하면서 더 뜻이 깊게 지어부른 우리 민족의 오랜 생활관습과 우리 인민의 고유한 인사법인 조선택의 우월성을 리론적으로 해설한 문헌들이 집필되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차문화와 각 지방의 특산음

식을 비롯하여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 나라의 약초재배역사와 승마습속, 조선택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주는 편지물들은 전통의학, 민족체육, 민족의상에 대한 깊은 리해를 도모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더욱 빛내기 위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연구활동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사기자

6월의 절기와 민속

6월의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날이다. 동지날에 가장 길어졌던 밤시간이 그후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하지날에 가장 짧아지며 낮시간은 1년 중에 제일 길다. 망종은 보리를 베고 벼모를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보리는 망종전에 베라》는 속담이 전해지는데 이맘때가 되면 보리장마라고 하는 비가 내려 밀보리를 빠른 기간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애써진 알곡을 썩일수 있기때문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망종이 되기전에 밀보리밭을 제때에

하여 밭을 갈고 알곡이 허실되지 않게 하였으며 벼모내기 하였다. 하지는 계절적으로 보나 영농공정으로 보나 한해 농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는 모의 환갑》이라는 속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하지전에 모를 낱아 그해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6월의 절기에 따른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6월은 산나물도 많이 자라고 남새도 수확하는 계절이므로 여러가지 산나물과 보리, 오이 등을 가지고 음식

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18세기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책 《과농소초》에 의하면 망종때 가을한 보리로 식초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절기에 여러 지방에서 취떡, 꿍치나물 등을 만들어 먹었다. 하지만 전반적지방에서 많이 만들어 먹은 음식은 썩으로 만든것이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썩떡이다. 이 시기 처녀애들은 봉선화물들이기를 즐겨하군 하였다. 올해의 망종은 6월 5일이 고 하지는 6월 21일이다. 본사기자

목덜미안마의 효과 목덜미안마로법은 정보전달물질인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하는 안마로법이다. 제3뇌실에서 만들어진 뇌척수액은 온몸의 신경세포들의 영양소인 동시에 정보전달물질에 의하여 각 기관과 내장의 활동기능을 보장한다. 목덜미는 인체의 5장 6부 장기들의 기능상태를 반영하는 집중부위이다. 그러므로 목부위안마를 자주 하면 해당 장기들을 직접 치료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목덜미안마는 아무때나 해도 좋지만 밤잠자기 전에 하는것이 제일 좋다. 목덜미에 위치한 장기들의 자궁위치는 중심부위에 전위선, 방광, 자궁이 있고 좌우에는 중심부위로 들어오면서 관상동맥(머리위, 귀위위치), 심근, 호흡기, 콩팥, 담낭, 위, 취

장, 맹장, 비장, 간, 결장의 순서로 되어있다. 두손으로 중심부위로 들어오면서 적당한 세기로 천천히 30~50번씩 주무른다. 눈을 밝게 하는 마사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후 다리를 쭉 펴고 두 발가락을 당기면서 두손바닥을 마주대고 2~3분간 비빈다. 다음 코등을 2~3분 비비고 두귀를 두손으로 2~3분 비빈다. 다음 두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목에 가져다대고 앞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좌우 허러운 등을 2~3분간 반복한다. 6개월간 이 운동을 한 결과 46~56까지 돋보기 1~3.5까지 끼던 사람이 안경없이 바늘에 실을 끼게 되고 신문도 볼수 있게 되었으며 협심증으로 부정맥이 오던것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본사기자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콩으로 만든 여러가지 음식들이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그중에는 민속음식인 두부도 있다. 두부는 물에 불군 콩을 갈아 걸러낸 물을 쪄서 서술을 치고 영긴것을 눌러 짜서 만든 음식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두부를 《포》(거품)라고 하였다. 처음 콩을 갈아 죽거리처럼 그대로 쪄면서 간을 친 음식(비지)에서는 형태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콩을 갈아 걸러서 쪄면서 간을 맞춘 음식에서는 서로 엉키여지는 형태상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최초의 두부였는데 이 이름을 순두부라고 불렀다. 그 후 엉키여지는 순두부의 성질을 리용하여 물거품처럼 짜서 만든 음식이다.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콩으로 만든 여러가지 음식들이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그중에는 민속음식인 두부도 있다. 두부는 물에 불군 콩을 갈아 걸러낸 물을 쪄서 서술을 치고 영긴것을 눌러 짜서 만든 음식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두부를 《포》(거품)라고 하였다. 처음 콩을 갈아 죽거리처럼 그대로 쪄면서 간을 친 음식(비지)에서는 형태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콩을 갈아 걸러서 쪄면서 간을 맞춘 음식에서는 서로 엉키여지는 형태상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최초의 두부였는데 이 이름을 순두부라고 불렀다. 그 후 엉키여지는 순두부의 성질을 리용하여 물거품처럼 짜서 만든 음식이다.

치상에 떡과 같이 높이 쌓아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구려때부터 내려온것이라고 한다. 고려시기 두부는 대중음식, 의례음식으로 널리 퍼졌다. 이 시기의 책들인 《목은집》과 《양촌집》에 두부에 대한 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두부에는 새기로 묶여 들고다니는 이리저리지 않는다는 단단한 모두부, 처녀의 꿈과 사랑을 상징하는 비단두부, 배에 싸서 굳힌 배두부, 미꾸라지를 두부속에 넣은 약두부 등 10여 가지나 있었다. 옛 문헌에는 두부는 맛이

좋을뿐 아니라 부드럽고 연하여 특히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반찬중에서 가장 좋은것은 두부리라고 써여져있다. 두부를 식생활에 리용하여 오는 과정에 그것으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 려사기록에 전해오는것만 하여도 순두부죽, 두부장, 두부찜, 돼지고기두부장, 추어두부장, 두부전골, 굴두부장 등 그 가지수가 매우 많다. 《교사십이집》에 의하면 가늘게 썬 두부를 지짐판에서 지진 다음 닭국물에 넣어 쪄인것을 연포라고 하며 그것을 친구들끼리 먹으면서 즐기는것을 연포회라고 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두부는 오늘 민족적향취를 진하게 풍기며 사람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정선은 17세기말-18세기 를 대표하는 사실주의적풍경 화가들의 한사람이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렸을뿐 아니라 화법리론에도 밝았으며 심사정을 비롯한 여러명의 우수한 화가들을 키워냈다. 정선은 자연을 자기의 독특한 화법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여 18세기 풍경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산수화들은 명승지를 비롯하여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산들과 호수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그린것이며 매 작품에는 지명이 꼭 써여졌다. 《용천의 파도》, 《인왕산》, 《구룡폭포》, 《너럭바위》 등을 비롯한 그의 크고작은 여러 화폭들에는 조국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 다양한 회화적언어를 통하여 반영되고 있다. 《구룡폭포》는 힘있고 재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정선과 독특한 산수화 정선은 필치, 폭넓은 공간구성 등으로 하여 정선의 화풍상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이다. 화면중심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와 그것의 수직운동에 대치하여 가로방향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면서도 안착감을 주는 소나무들은 화가의 뛰어난 묘사기량을 잘 보여준다. 《너럭바위》는 흰색을 기본으로 하여 화면을 구성한 그림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림에서는 여름철 시내에서 자연을 즐기는 두 인물의 심정이 경쾌한 필치로 전달되고 있다. 정선은 또한 《가아름 타는 로인》, 《봄비》를 비롯한 인물주제의 그림을 그리면서 인민생활을 자연의 아름다움들 기왕 구하지 못할 자식이나 안될것 없다. 머느리가 여허할바를 불러하는것을 보고 그는 곧 방으로 들어가 비상을 꺼내었다. 시아버지에게서 비상을 받아든 순희는 무엇인가 깨달은바가 있어 그것을 물에 조싹하게 풀었다. 이윽고 비상을 풀 물그릇은 정환에게로 넘어갔다. 정환은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자 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정환의 얼굴과 몸에 있던 종창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그의 건강이 눈에 띄이게 회복되어갔다. 김진사가 곤경에 처한 하민정을 구해주니 하민정집에서 도 그 역시 은혜를 몇몸으로 갚았다. 그러나 의리를 가장 중히 여기는 순희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것이었다. 사람들은 순희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지극한 정성이 두 집의 불행을 가져주고 다 죽게 된 목숨도 살린것이라고 서로 전하며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끝)

이처럼 정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격조 높고 구구한 예측적인 미술가였으며 진실하고 독특한 조형적형상을 창조하여 조선화의 사실주의적표현력을 풍부화한 우수한 화가이다. 본사기자

이처럼 정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격조 높고 구구한 예측적인 미술가였으며 진실하고 독특한 조형적형상을 창조하여 조선화의 사실주의적표현력을 풍부화한 우수한 화가이다. 본사기자



《봄비》(정선 작)

사화

우연한 기적 (4)

글 권영희, 그림 채대성

그러던 어느날 밤 순희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날 경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안해인 순희도 잘 몰라보고 헛소리를 하군 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어리여있었다. 순희는 남편에 대해 별로 애정을 느낀적 없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와 그를 간호하는 동안 못된 병에 걸려 병상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는 그를 무척 동정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자! 순희는 이렇게 결심하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다. 그토록 애를 썼지만 남편의 죽음은 어느새 문턱에까지 다가왔다. 순희는 세상에 미련이 없 어졌다. 팔자가 기박하여 못된 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지도 못하니 살고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을 따라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순희는 몸에 지니고있던 비상을 꺼내었다. 너자로서 용납 못할 굴욕을 당하였을 때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몸에 지니고있던 약이었다. 순희가 그것을 물에 타서 막 마시려는 순간 문득 집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걱정하고있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약대접을 도로 방바닥에 내려놓고나서 살머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뒤동산에 올라가 멀리 친정쪽을 향해 마지막으 하직인사라도 하고싶었던 것이다. 동산에 올라보니 밤은 깊어지고있었다. 순희는 멀리 친정집이 있는 쪽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일찍 절을 떠나는 이 딸을 용서하세요. 소녀는 전생에 죄많은 병든 남편을 만나고 또 정성도 부족하여 남편을 살리지 못하였습니. 죄많은 소녀는 이 세상을 하직하려 하오니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입속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하고 땅에 폭 어퍼러져 슬프게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울고난 그는 옷대 무시를 단정히 바로잡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린 다음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병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온 순희는 남편의 머리맡에 빈 대접이 있는것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남편이 독약을 넣은 물인 줄 모르고 들이마셨것이 틀림없었다. 순희는 어쩔줄 몰라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며 사시나

무 멀트 멀었다. 이때 놀람에도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제법 생기가 있는 목소리로 《물 좀 주우》 하고 말했다. 순희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급히 밖으로 나가 물을 떠다 입에 대어주니 그는 한모금 마시고나서 《아니, 아까 그 물 좀 주우》 하고 순희를 번쩍 올려다보았다. 아까 먹은 물이란것은 비상을 탄 물이었다. 《이예, 어서 그 약을 더

무엇인지 먹고싶다는데로 주려무나.》 하고 마침 방안에 들어와있던 시아버지가 말했다. 순희는 하는수없이 비상을 물에 타놓고 밖에 나갔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가 순희를 밖으로 데리고나간 김진사는 회파람소리를 내며 속삭였다. 《이예, 어서 그 약을 더



비상이 더 없기도 하려니와 그것을 알고야 어찌 먹이랴. 《아까 무슨 물을 먹었기에 저애가 그것만 찾느냐?

우리 선조들의 꽃정서

우리는 꽃정서의 아름다움의 다리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는 왜 수탉보다 짧나? 형: 《바보같은거, 그것도 불라? 다리가 길면 알을 낳을 때 높은데서 떨어져 깨질 게 아니야?》 동생: 《형, 암탉의 다리

우리는 꽃정서의 아름다움의 다리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는 왜 수탉보다 짧나? 형: 《바보같은거, 그것도 불라? 다리가 길면 알을 낳을 때 높은데서 떨어져 깨질 게 아니야?》 동생: 《형, 암탉의 다리